

결혼문화로 본 CIS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김현주(상명대)·정덕준(카자흐스탄국립대)·김영미(공주대)**

<목 차>

- | | |
|------------------------|--------------------------|
| 1. 서론 | 2) 고려인 1,2세대 결혼 인식의 변화양상 |
| 2. 고려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결혼관 | 3) 고려인 3,4세대 결혼 인식의 변화양상 |
| 1) 고려인 정체성 형성의 배경 | 3. 결어 |

1. 서론

19세기 중엽 시작된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그 역사가 160여 년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분산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193개국 75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¹⁾ 그 가운데 이주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주 원인과 현상이 독특한 디아스포라 집단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만이 가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IA5A2A03068653).

** 김현주(주저자), 정덕준(공동저자), 김영미(교신저자)

1) 외교부(2017)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 거주 한인 수는 동북아지역 3,366,656명, 북미지역 2,733,194명, 유럽지역 630,693명, 남아시아태평양지역 557,791명, 중남미지역 106,794명, 중동지역 24,707명, 아프리카지역 10,853명 등이다. 외교부, 「2017 재외동포 현황」, 14면 참조.

특별한 이주 경험들에서 비롯된다.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4년 1월 러시아 당국의 이주 허가를 받은 13가구 수십 명의 조선인 농민이 두만강을 건너 우수리스크 지역 '티진하'에 이주 정착한 것이 시초인데, 이후 이주민 수가 급증하여 1920년대에는 20여만 명이 연해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집단 거주하게 된다.²⁾ 이들은 생계를 위한 이주민이 대부분이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중국 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자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주해온 우국지사 또한 적지 않았다. 연해주에 자리를 잡은 이주 조선인들은 러시아 적군파에 가담하여 일제와 맞서 싸우며 소비에트 정부 건설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1937년 연해주 지역 이주 조선인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수가 170,103명으로 알려져 있다.³⁾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낮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공민권 박탈과 거주지 제한 등 갖가지 차별을 받으며 정착하는데, 이러한 민족 차별은 스탈린 사망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비로소 자유를 되찾게 된다. 하지만, 독립국가연합 각국이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은 거주 국가를 떠나 다시 러시아 모스크바나 연해주 지역, 또는 우크라이나 등지로 역이주하기도 한다.⁴⁾

고려인의 이주 역사가 이처럼 특별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디아스포라를 배태해 왔다는 데 있다. 사프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 離散)는

-
- 2) CIS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4/윤인진, 『코리아나 디아스포라: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참조.
- 3) 1937년 스탈린정권의 소수민족 분리정책에 따른 연해주 지역 고려인의 강제이주 및 그 참상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러시아 극동지방 고려인 강제이주」,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153-193면 참조.
- 4) 2018년 12월 현재 CIS 고려인은 50여만 명으로, 22만여 명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서 역이주한 1만여 명과 사할린에 거주하는 4만3천여 명을 포함하여 약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현황> 참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 완전히 수용되지 못한 채 경계인(marginal man, 주변인)으로 살고 있으며, 조상의 고향을 이상향으로 여기면서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되돌아갈 것이라 믿고 희망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디아스포라는 거주국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적응을 시도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거주국 사회에 정주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는 국가적 정체성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⁶⁾ 하지만 비자발적인 요인이나 강제적 추방이 이주의 근원적 원인인 고려인의 디아스포라는 다른 지역 이주 한인들과 달리 심리적인 상흔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련 시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와 러시아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며, 1991년 소련 해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는 체제전환과 토착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고려인이라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시각은 고려인과 한국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민족이나 탈민족이냐라는 이중적 시선에 의해 타자화시키거나, 그들을 고려인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집합적 대상으로 바라볼 뿐, 내부적 다양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고려인이 생활세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겪은 삶의 질곡에 관한 스토리를 부각하거나 그에 따른 민족 정체성 상실을 표피적으로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결코 150여 년의 긴 시간을 읽어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이

5)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1991.

6) 이진형, 「대안적 디아스포라 이해와 그 이론적 난국」, 『집으로 가는 길: 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상상력』, 엘피, 2018. 190면. 그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추방'과 '상실'의 역사, 그리고 흩어진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연대 의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는 떠나온 고국 또는 고향에 계속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디아스포라는 이주국의 국가 정체성 아래 모호하게 포섭되거나 생존을 위해서 그에 동화되려고 하는 모호한 존재이기도 하다.

뒤섞여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배민족과의 관계망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현실,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즉 동화와 전통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한 고려인들의 삶의 흔적을 제대로 추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이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 편차가 생기게 된 과정을 시대적 상황과 고려인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이는 곧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자 궁극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어떤 민족이건 결혼을 통해 후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독보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결혼은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당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살펴,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원인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고려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결혼관

2.1. 고려인 정체성 형성의 배경

민족 정체성이란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의미한다.⁷⁾ 따라서 고려인의 정체성은 이주와 정주(定住), 귀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고려인의 역동성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이나 가치 권력 등은 다양한

7)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는 언어,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을 통한 혈연적 유대는 민족 정체성을 지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위치를 결정지으며, 이 과정에서 정체성도 유동성을 띠게 된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한 투쟁은 타자와 사회적 맥락,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고려인은 조선에서 러시아로, 다시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나 한국으로 이주와 정주, 귀환을 반복하면서 고려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고려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정립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과정에 그들이 당면한 현실문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게 이해되고 선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선택의 종합이 지금 고려인의 현 위치라 할 때 세대별 선택의 이유와 조건은 차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주 고려인 1세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19세기 중엽부터 진행된 고려인의 이주는 1937년 스탈린 정부의 강압적 강제이주를 분수령으로 일단락되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이주가 진행되기까지 150여 년의 긴 시간을 관통하고 있다. 이때 고려인 1세대는 스탈린 정부가 폭압적으로 실시한 1928년 이후의 농업 집단화 과정의 희생양이자, 193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반대파 숙청 및 고려인 지도층 제거와 함께 강행한 강제이주라는 통한의 역사를 공유한 세대이다. 자연적·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 1세대는 일본 첩자라는 의도적인 의심을 받으며 공민권 박탈과 함께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다른 소수민족과는 차별화된 생존 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데 일조하여 철저하게 체제에 적응하는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양의 방법으로 소수민족이라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각자의 처지에 따라 확고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해 나간 것이다.

이때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있어 삶을 위한 생존 전략은 영농 기술이었다. 연해주 시기부터 전수해온 소농경영 방식⁸⁾이 192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

8) 백태현·이애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 『비교문화연구』제6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74면. 고려인은 러시아 이주 초기인 연해주 시기부터 대부분

의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잠시 힘을 잃었지만, 새롭게 변화된 농업생산 체계에 적응하며 다른 소수민족보다 월등한 영농 기술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사실 콜호스(kolkhoz) 체제의 집단농장은 관료적 운영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고려인은 고려인 집단농장의 위원장이라는 가부장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농업생산체계에 적응하며 그 생산력을 제고시켜 나간다. 당시 고려인에게는 타민족과 차별화된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농장의 협업 또한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시스템은 가시적인 결과물의 산출만큼이나 고려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시 고려인을 결속시켜준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이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단농장'이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고려인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반이 된다. 비록 강제이주 과정을 전후하여 수많은 가족이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고려인 1세대에게 있어 가족적 유대와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민족 정체성의 근원인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영위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는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삶의 터전인 집단농장이라는 집합적 구조에 기인한다. 집단농장

농업에 종사하였고, 만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전작(水田作)을 개척하였다. 그들은 조선 후기 이래 전개되어 온 집약적인 소농경영의 방식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즉 소규모의 가족을 중심으로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영농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록 적은 토지일지라도 가족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위면적 당 수확량을 높여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러한 선진적인 영농 방법과 고려인 특유의 근면성은 연해주 지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사회·경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의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과정을 통해 고려인의 이러한 영농능력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은 다른 타민족보다 월등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고려인만의 특별한 공간이자 근면 성실의 장이지만, 독립된 가족 간의 밀착과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집단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협업체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개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이 혼재해서 나타나는 공간으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가부장적이며 보수적 성향의 충돌이 양산하는 갈등이 그것으로, 바로 고려인 1세대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레닌기치』⁹⁾에 실린 풍자성 기사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장착된 집단농장 안에서 공동체적 체제를 비롯듯 집단 노동을 회피하거나 절도와 공금횡령·직권남용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글들은 이를 반증하는 한 예이다. 이는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집단농장'이 겉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적극 동화하면서 동족의 결속을 돈독히 해 주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인의 실질적인 사고와 소련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주 고려인의 의식은 전통적이고 봉건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 열망과 함께 권력에 복종하는 경향 등이 그것이다. 고려인 대부분은 1860년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한, 극한적 빈궁에 허덕이던 농민들이다. 연해주는 이들

9)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후 1938년 5월 15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발간된 고려인 신문, 연해주에서 발간되던 『선봉』의 속간 신문으로 『레닌의 지침』이라는 제명으로 발간되다가 1952년 1월 1일 『레닌기치』로 개명하여 발행. 고려인 문화는 소수민족의 문화라는 점에서는 특수했으나, 소비에트 문화의 일반성이라는 범주를 절대 넘어설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 고려인 문화가 지향했던 점을 밝혀내는 것이 곧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예컨대 『레닌기치』가 기본적으로 고려인을 공산주의·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여 사회주의 정신을 교양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레닌기치』는 고려인 사회의 공연예술과 문학 및 전통 등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공적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소련의 감시하에 진행된 일이고, 따라서 고려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인의 새로운 생활 터전이면서 동시에 과거 항일 독립운동과 긴밀하게 결부된 공간이다. 하지만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지식인들은 소련 정부의 계획적인 음모에 의해 거의 희생당하고¹⁰⁾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은 평범한 농민들이 대부분이다. 피지배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특성은 소극적이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성향을 지닌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생활양식을 표명하면서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사회계층 상부의 권위 및 정권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경향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다.¹¹⁾ 이렇게 볼 때, 당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대중적 심리상태는 그들이 처한 현실 앞에서도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신분 계급이 낮은 계층이다 보니 상류 계층에 대해 존중심을 표현하는데, 이는 오랜 세월 유교적 전통에 체화된 민족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경험치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따라서 고려인 1세대의 소련 동화 의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민족이든 소수민족이 주류 민족에 동화하는 속도는 소수집단의 내적

10)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179-181면. 이에 의하면, 몰로토프 소련인민위원회 의장과 스탈린 서기장이 공동 서명한 「극동지방 국경 부근 거주 고려인 강제이주 문제에 관한 결의안 No. 1428-326cc」에는 “극동 지방의 일본 정보원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 고려인을 “1938년 1월 1일까지 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구역, 발하쉬 구역으로 신속히 강제이주”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 결정이 내려진 지 4일 만에 “이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한인사회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 한인 지도급 인사 2천5백여 명”을 반혁명분자나 간첩이란 혐의를 씌워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한 후, 18만여 명에 이르는 연해주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킨다.

11) 설동훈, 「국체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경제와 사회』 103권, 비판사회학회, 2014, 9면. 사실 민족 개념의 역사는 매우 짧다. 조선 시대처럼 인구의 상당수가 노비인 사회에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데, 양반과 상민, 노비는 상대방을 ‘우리’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 피지배계층에 속하는 고려인이 인식하는 민족이란 개념은 기득권층에서 인식하는 그것과는 차별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성과 외부적 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¹²⁾ 따라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중주국인 러시아에의 동화 속도가 빠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8월 고려인의 민족주의 성향을 약화하고 '소비에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실친한 소련 정권은 동화현상 즉 소수민족의 '소비에트화'를 선진적 진취성으로 간주, 동화가 느린 것을 구시대적·보수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소비에트화'를 강요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강제이주 대상자였던 고려인의 경우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적극적 동화, '소비에트화'밖에 없었다. 또한, 강제이주 이후 적성국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거주지 이동 금지와 공민권 박탈 등의 핍박은 고려인의 '소비에트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¹³⁾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세계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련적인 정체성을 수용하고 소련 공민으로서의 현실 인식을 뚜렷이 한다. 고려인은 소련의 소수민족으로서 소련 사회체제

12) Warner, Warner Lloyd, and Srole, 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3) 이에 대해 칸 발레리는 구소련 시기 고려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된 원인, 즉 그들의 성공 요인이 주로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에 있었다고 하여, 스탈린의 민족정책과 고려인의 성공 요인의 상관성을 부각시켜 스탈린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스탈린 시기에는 고려인에 대한 민족적 탄압이 있었지만,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은 이념적으로 그리고 실제생활에서도 전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와 인민친화의 원칙에 기초했기 때문에, 고려인의 삶은 다양한 민족들의 대표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했고, 이것은 그들의 민족적 환경에 대해 유연한 정신적 태도뿐만 아니라 유연한 행동 모델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으로 생경한 환경이란 조건에서, 고려인은 한국의 많은 전통 문화적 요소를 잃었지만, 한국, 러시아,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문화를 통합하는 그들만의 특이한 '유라시아인 코리아인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집단의 눈에는 고려인의 문화적 혼종성과 근면성, 그리고 모든 민족과의 중립적 관계 때문에 고려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칸 발레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적응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 『디아스포라 연구』 제5권 제2호(제10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2011.)

의 복합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소련 국적의 소련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정체성 ‘창조’에 힘써 온 것이다.¹⁴⁾

2.2. 고려인 1, 2세대 결혼 인식의 변화양상

러시아 문화권으로 동화되는 최적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인과 결혼하여 융합되는 것이다. 적극적 동화를 지향하는 고려인으로서 이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인 2세대의 경우 콜호스라는 집단농장 체제에서 벗어나 도시로 유학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다양한 민족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전통적 민족혼에 대한 사명감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이주 세대인 고려인 1세대의 경우 집단농장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타민족과의 결혼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고려인의 결혼관은 민족 내혼(內婚)을 강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려인 사회의 강력한 가족 응집력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결혼 대상이 되는 우즈베크, 카자흐, 러시아 민족과의 가족생활에서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 고문서 ‘고려인민족문제’ 자료에 따르면, 1937년부터 1940년까지는 이민족 간 정식결혼 건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은 강제이주 이후 2차대전 발발 전까지로, 고려인이 적성국 민족으로 지적되면서 타민족의 시각이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고, 고려인 역시 주변 소수민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배타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반목과 배타 현상은 소련 정부의 두 번에 걸친 콜호스 통합화·대형화 과정에 기인하다. 1958년 MTS(Machine Tractor Station)¹⁵⁾가 폐지되고, 이를 계기로 콜호스들을 통합하는 정책이 펼쳐진다.

14)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2002, 105면.

15) 이에 대해서는 김홍명, 『소련 집단농장의 조직과 성격』, 『현대 소련의 해부』, 한길사, 1981, 267-268면 참조. 기계·트랙터 공급소(MTS)는 2930년 집단농장에 기계 설비나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부채가 누적된 콜호스는 인근의 성공한 콜호스에 병합하거나 몇 개의 콜호스를 묶어 슥호스(Sovkhoz, 국영농장)로 만들어 집단농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슥호스로 통합된 집단농장은 여러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공동체로 바뀌는데, 이와 같은 두 번에 걸친 통합화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콜호스는 고려인 콜호스였다. 인근의 소위 '지방민'(토착민, 원주민의 별칭) 콜호스보다 고려인 콜호스들이 그 운영이나 수익성에 있어서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고려인 콜호스들은 인근의 열악한 콜호스의 부채를 공동으로 떠맡아야 했고, 이 때문에 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특히 통합 과정에서 상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민족 구성원들의 태만과 온갖 비리 등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은 타민족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농경기술에서 월등한 능력을 지닌 고려인은 농경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으며 성실성과 근면성도 보이지 않는 타민족에게 일종의 우월적 인식이 싹트게 된다. 고려인 사회는 성공적인 벼농사로 타민족에게 기술 전수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소련 당국의 확실한 지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인의 타민족에 대한 암묵적 불신과 배척이 쌓이게 된 것이다.¹⁶⁾

특히 1953년 스탈린 사후 고려인에게 족쇄처럼 덧씌워 있었던 거주지 제한령이 폐지되자, 고려인 대부분은 콜호스를 이탈하여 그들의 우수한 농경기술을 토대로 '고본질'¹⁷⁾이라는 차별화된 경제활동에 몰두,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농업 전문가를 공급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는데, 1933년 이후 MTS에 정치부가 설치되어 집단농장 관리와 작업 전반을 감독하는 등 당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통제의 기능까지 담당한다. 대체로 라이온 중심지역에 설립된 MTS는 인근의 집단농장에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1958년 집단농장 자치권의 제약요소였던 MTS가 폐지되고, 그 소관 기계들은 집단농장으로 이관되었다.

- 16) 김현주, 「CIS 지역 고려인 문학을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 『한어문교육』 제31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4, 52면.
- 17)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의 영농방식이었던 고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구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여 집단적 농업생산체제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적 영역을

삶의 근거지를 도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이주 초기 소수민족들이 섞여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은 당연히 민족혼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타민족과의 사이는 공동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선뜻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완강히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인 사회의 공동체 기반이 점차 약화하면서 민족 내혼, 민족적 문화에 기반을 둔 자녀의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콜호스 등이 '주식회사형'으로 전환되고, 과도기 단계에서의 빈번한 임금 체불 때문에 콜호스를 떠나 도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고려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민족 내혼도 고수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가운데 고려인 사회에는 친족 관계의 혼란으로 드물지만 '근친혼'도 나타난다.

1937년 강제이주 후 고려인 1세대의 결혼관은 전통 관념을 그대로 고수되고 있던 데 반해, 1953년 스탈린 사후에는 고려인 사회의 결혼관이 확연히 변화한다. 이 시기는 고려인들의 '유형(流刑)'이 풀리기 시작하고, 고려인 사회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시점이다. 바꿔 말하자면 1세대와 2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첨예화되는 시기인 것이다. 고려인 1세대가 1937년 강제이주 당사자들이라면, 2세대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후 소련 시대에 태어난 세대이며, 이들은 고려인이지만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그러나 모국어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세대이다. 이들 두 세대는 여러 부분에서 세대 차가 뚜렷이 드러나지만, 특히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접점이 결혼관의 인식 차이이다. 1950년대 접어들어 고려인 사회는 결혼 제도가 이슈화되면서 공식적인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것은 『레닌기치』의 <지상토론> 코너에 고려인 한 엘레나가 "동성동본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올린 것을 계기로 시작되는데, 1956년 11월 3일부터 다음 해 2월 17일까지 무려 4개월

확보하며 전개되어 왔다.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 농업 집단청부제와 토지 임대제도가 합법화되면서 고본질도 합법화하게 되었다.(백태현·이에리아, 앞의 책, 65면.)

가까이 진행된다. 신문에 게재된 토론 참여자의 의견은 12건이지만, 편집부는 토론을 마감하는 ‘소감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다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모두 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중복되는 내용을 추려 12개로 압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⁸⁾

1950-60년대 고려인 사회에서 ‘동성동본 금혼’ 문제가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소비에트화’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가 빚어낸 결과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2005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된 데 반해, 반세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민족 동화만이 아닌, 어떤 본질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 고려인 사회가 직면해 있던 사회환경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콜호스라는 집단농장 체제에서 기인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농장은 공동 생산과 공동 작업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래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노동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생활방식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부장적인 권위가 통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또한, 가부장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당시 스탈린 정권하의 고려인 사회는 주거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콜호스에서만의 집단생활은 다양한 민족과의 사회적 교류는 물론 다른 콜호스 고려인과의 교류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런 환경에서 고려인의 결혼 대상자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 바꿔 말하자면, 집단농장 체제하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에 직면해 있던 고려인은 ‘동성동본 결혼’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스탈린 사후 거주지 이동 제한령이 풀리면서 고려인에게 공민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적성국 민족으로 치부되어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공민증을 압수당하고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스탈린 사망 후 비로소 공민증이 재발급된다.

18) 『레닌기치』, 1957.2.17.

그런데 공민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고려인의 성이 러시아식으로 변체(變體)되어 기록되는데, 그 변체된 상태의 기록이 상용되면서 민족성 보존과 혈통 유지에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러시아 알파벳(자모)에는 한국어(조선어) 문자의 ‘어’ ‘여’ ‘외’ ‘왜’ ‘애’ ‘애’ ‘오’ 받침 등 모음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다. 이 때문에 고려인의 성을 그들의 신분증명서(패스포트)에 러시아어로 적어 넣을 때 발음상 왜곡된 별의별 성이 다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강’씨 성은 姜(진주), 康(신천), 疆(진주), 强(충주)씨 등이 발음은 같으나 각각 다른 성씨인데, 러시아 문자로는 모두 ‘간’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한문을 모르고 본을 모르는 1세대 고려인 이후 세대들은 ‘간’씨 성은 모두 동성, 종친으로 알고 있다. 魯(노)씨, 路(노)씨 성도 모두 ‘노가이’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李(이)씨 성은 ‘리’ ‘니’ ‘니가이’ ‘니-리’ ‘이’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李씨 성이지만 서로 다른 성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한국 성을 러시아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성은 뜻도 발음도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대부분의 성씨가 변체되고, 비교적 정확하게 표기된 성은 ‘김’ ‘안’ ‘윤’ ‘마’(마가이) ‘허’(러가이) 등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 사용이 점점 사라져 자신의 성이 무엇인지, 본은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경우 자기 성과 이름, 본을 한문으로 알고 있어 ‘동성동본’ ‘종친’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경우 ‘동성동본’ ‘종친’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고려인 사회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성동본’인데 왜 금혼제도를 답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나오게 되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요컨대, ‘동성동본 금혼’ 논쟁은 콜호스 집단농장 시스템과 공민증 발급 과정에서의 오류에서 연유하는 사회현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 내부에서부터 파생된 균열로서 고려인 1세대와 2세대의 분화과정이자 정체성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바꿔서, 이 시기의 ‘동성동본 금혼’ 논쟁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엿보게 하는데, 그러나

그 고민의 흔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얻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차별과 핍박을 감내하며 타민족과의 공존을 통해 소수민족으로 살아남은 그들의 삶을 직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동성동본 금혼'과 같은 내부적 변화와 더불어 고려인 사회의 결혼관 변화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자는 이민족과의 결혼이다. 고려인 1세대의 남다른 교육열에 힘입어 도시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 정착한 고려인 2세대는 러시아식 사고방식과 러시아 문화에 익숙해진 세대이다. 이들 고려인 2세대가 접한 새로운 문화 가운데 하나인 '자유연애'는 그들 세대의 결혼관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의 소비에트는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자유연애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한 고려인은 인터뷰에서 "주말이면 사교춤을 추러 공원으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타슈켄트의 고리키 공원에는 주말이면 수백 명의 젊은 고려인 남녀가 모여서 서로 사귀고 춤추며 사랑"에 빠졌고, 심지어는 "고려인 여성 중에 부모의 중매로 결혼한 경우는 80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솔회할 정도로, 이미 이때부터 고려인 2세대에게도 자유연애가 일상적인 일이 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려인 2세대는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결혼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이민족 간의 결혼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기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데, 이민족 간의 결혼에서 대상의 선택은 다른 소수민족보다 러시아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41년에 발생한 세계대전은 이민족 간의 결혼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변화에 변수로 작용한다. 1941년부터 1950년까지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소련군 전사자가 속출하고, 미망인이 된 러시아 여인들이 고려인 남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의 고려인 남성과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은 84건이고¹⁹⁾ 성별로 보면 고려인 남자가 이민족과 결혼한 경우가 93%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러시아 여성의 활발한

성격,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민족차별의 억울한 족쇄에서 벗어나려는 고려인 청년들의 동화지향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려인 남성들, 특히 고려인 2세대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소련에의 동화를 강렬히 원하는 고려인 2세대의 경우 러시아 여인과의 혼인은 곧 진정한 러시아 민족의 일원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심리적 기대가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²⁰⁾

바뀌 말하여, 고려인 2세대의 이민족과의 결혼은 순수한 행복이 전부가 아니었으며, 그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서로의 애정을 바탕으로 거주국 원주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쉽게 익숙해지는 한편, 그 나라 민족과의 인척 관계를 통해 위정자의 신뢰를 얻고 인사 때 일정 부분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²¹⁾ 하지만 이민족 간의 결혼율은 항상 상향 곡선을 그리지는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족 간의 결혼에 대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혼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민족 간의 결혼은 줄어들고 이혼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통계에 의하면 1951년에서 1964년 사이에 이민족 간의 결혼은 25건, 이혼 5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²²⁾ 여기서 당시 이민족 간의 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민족과의 결혼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19) 김문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1999, 169면.

20) 이 밖에 고려인 여성보다 고려인 남성이 대도시로의 유학 기회가 더 많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결혼에 관한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21) 이에 대해서는 이정옥, 「중아시아 한인 가족구조의 변화·해체·재결합·분절의 역동성」, 한국사회사학회 편, 『중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1997. 참조. 이에 따르면, 타민족 여자들이 고려인 남자와 결혼하려는 경향이 다분하지만, 고려인은 민족 내혼을 좋아하며 민족 외혼(外婚)의 경우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한다. 이슬람 전통이 있는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은 엄격한 대가족 제도에 기반한 친족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음핵 절제, 할례, 조혼, 그리고 여성에게 '절대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2) 김문옥, 『중아시아의 한국문화』, 좋은 땅, 2014, 152-153면.

그 원인으로서는 러시아 민족의 경우 철저한 일부일치제이지만 이혼율이 높아 결혼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딸이 부모를 모시는 러시아 관습과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고려인의 전통이 문화적 갈등을 빚게 된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이민족과의 결혼 후 고려인이 겪게 되는 부담과 부작용은 대체로 장년기를 넘어서면서 절감하게 된다. 대부분 45세를 전후하여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 사유는 식생활문화의 상이성에서 오는 마찰로 시작되고 전통예식 행사 때의 이질감 등이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인 사회는 고려인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심각한 세대 차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보다 같은 민족 간의 결혼이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혼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2.3. 고려인 3, 4세대 결혼 인식의 변화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인 1, 2세대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급속한 동화 속도로 인해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적 애착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인 대부분이 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콜호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고려인 3, 4세대는 그들 나름의 새로운 특성을 내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3, 4세대는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소련 정권에의 적극적 동화, ‘소비에트화’로 인해 소련을 모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타민족보다 안정적으로 소련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²³⁾ 고려인만이 가능했던 뛰어난 영농 기술로 ‘고본질’이라는 독특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23) 3세대 고려인 가운데 우리말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 된 뒤 모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연락도 두절 돼 후손에게 구어로만 모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3~4세 고려인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신의 뿌리가 한민족이며, 전통 고려 문화라는 걸 배웠지만 언어도 문화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러시아어로만 공부를 하고 집에서도 대부분 러시아말을 쓰기 때문이죠.”(『고려문화』 통권3호, 2011, 338면)

투자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높은 학구열에 힘입은 사회 진출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1991년 소련 해체 이전의 상황은 고려인 사회에서 '살기 좋은 시기'²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자국의 민족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탈(脫) 소비에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련적 정체성을 지향했던 고려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²⁵⁾ 독립 이전까지 고려인 사회가 담지해온 '잘 살았던' 고려인의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고, 또다시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 변신을 꾀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련 체제하에서 공화국 및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상호의존적 산업구조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 업종별 불균형과 비능률성·비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 근대적인 유통망과 가격 구조는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역작용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려인의 직업 선택의 폭 또한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에 고려인 사회는 당장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24) 이은정,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 이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1호, 역사문화학회, 228면 재인용. 소련 해체 이후 혼란스러워진 사회경제적 상황을 경험한 고려인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구소련 시대 돈 안 들고 했지만 독립하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91년 9월 1일 독립하고 많이 힘들어졌죠. 독립 이전에는 부모님이 크레인 차 운전하셨는데 개인 차 아니고 나라 차였어요... 우즈베크에서 목화하면 다른데 보내고 세금 없이 왔다갔다 나라끼리 했는데, 전기세도 적게 내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계량기 다 달았던 거죠. 독립, 안 좋죠!”

25) 윤형숙 외, 「소련 사회주의 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족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6-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9면.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책은 독립국가연합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배타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전체인구의 80%가 우즈베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족정책을 수행하는데 수월한 조건이 형성된 점에 기인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독립국가연합 각국의 자민족 비율이 높을수록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짙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위해 비교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본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²⁶⁾

도시로의 빠른 거주지 이동은 고려인 3, 4세대의 배우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70-8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도시 이주 통계에 의하면 여러 민족 중 도시에 집중된 민족은 러시아인(10.1%), 우크라이나인(13.4%), 고려인(17.0%)로 추정되고 있다.²⁷⁾ 이처럼 큰 도시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일과 전문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도시로의 진출은 다양한 민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고 여러 민족과의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즉 타민족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과정에 민족 간의 관계가 친밀해졌으며, 그 결과 민족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쉬토포나 크즌오르다 같은 농촌지역의 민족 간 결혼 비율보다 수도인 알마티 거주 고려인들의 민족혼이 훨씬 높게 측정되는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도시로 유학하는 고려인들 가운데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타민족에 배타적인 부모세대와는 달리 고려인 3세대 이후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선호한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타민족과의 혼인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결혼 만큼이나 이혼이 증가하게 된다.²⁸⁾ 특이한 사항은 타민족과의 이혼 후

26) 백태현·이애리아, 앞의 책, 95-100면.

27) 이 조사에 따르면 1979년 경 카자흐스탄 거주 전체 고려인의 86.6%가 구리에프에 거주하고 있었고, 알마티에 사는 고려인 수도 1959~79년 시기에 4.6배 이상, 1979~89년 시기에는 1.3배 증가했다고 한다.(염 나탈리아, 「1970~8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 현상을 통한 다민족 관계 발전 연구」, 『슬라브연구』 제30권 1호,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97-98면.)

28) 카자흐스탄의 경우 1970년대 초의 이혼율은 22.7%로 나타났는데, 10년 후에는 24.9%로 거의 네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염 나탈리아, 위의 글,

재혼하는 경우 같은 민족을 선호한다는 점인데 이는 결국 세대가 바뀌면서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의 뿌리는 여전히 고려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유추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타민족과의 결혼에서도 러시아인과의 결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지 동화화의 목적이 어느 민족보다 분명하기 때문이지만, 이와는 달리 우즈베크·카자흐족 등 거주 국가 타민족과의 배타적 이해관계 속에서 토착 민족의 지배적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는 독립국가연합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현지어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현실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현지인과의 결혼을 통한 동화화의 의지도 찾아보기 드물다는 점에서 고려인 사회의 시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의 시기에 이민족과의 결혼이 확장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현지인을 열등하게 보는 “오리엔탈리즘”²⁹⁾이 고려인 사회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³⁰⁾

이렇게 볼 때 고려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대체적으로 민족간의 결혼을 우선시하고 있었고, 고려인 1, 2세대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결혼 생활을 직접 경험한 고려인 3, 4세대들도 스스로가 체득한 이질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같은 민족혼의 중요성을 성찰하게끔 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후세대로 갈수록 민족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자각은 없었더라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소통이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고려인으로서의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직후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배치된 정착지에서 그들의

103~104면.)

29) 김현주, 앞의 글, 45-51면.

30) 물론 다수의 고려인들이 카즈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과 결혼한 사례도 많지만, 결혼생활의 유지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혼 빈도수도 높을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 고려인 간 결혼 성사율이 높은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오리엔탈리즘적 의식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동시에 작용했던 것이 그 요인이 아닌지 추측 가능하다.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 콜호스를 적극적으로 건설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³¹⁾ 그 결과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해 후손들이 미래의 고려인 사회를 열어갈 주축이 되었다. 따라서 비록 다민족이 섞여 사는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특수한 유전자를 이어온 고려인들의 역사는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지점에서 그들의 의지와 삶의 지향점을 읽어야 하고, 그 바탕 하에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결어

1860년대에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1950년대 스탈린 사후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인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로,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연해주 재정착과 모국 귀한 등으로 이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CIS 고려인들, 150여 년 동안 한반도와 유리된 삶을 살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살아온 이들의 정체성은 참으로 애매하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유랑하고 정착을 위해 몸부림쳐온 고려인들에게 정체성 상실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처럼, 그들의 정체성, 특히 민족 정체성은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구국 운동의 선봉에 나섰을 뿐 아니라, 나라 잃은 힘없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강제이주의 고통을 당한 그들에게 우리는 ‘빛진 자’의 심정³²⁾을 가져야 마땅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려인에 대한 접근은, 그것이 개인에 관한 것이든 이주 역사의

31) 홍용호, 『『레닌기치』에 나타난 1938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아시아문화연구』 제32집, 201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37면.

32)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2013.

질곡이든 또는 고려인 문학처럼 그들이 축적한 문화적 산물에 관한 것이든,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선적인 접근으로 재단한다면 그들의 이주 역사와 문화를 온당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은 가능할 수가 없다. 고려인이 살아온 공간과 역사적 변곡점을 추적하기에 앞서 그때그때 그들이 당면한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그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중심으로 150여 년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여 온 디아스포라와 그 삶의 특성을 결혼문화의 변이 양상을 통해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정착지 현실과 그 공간에서의 삶의 양상, 그리고 결혼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실증적인 방법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효과적이고 좀 더 온당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이는 곧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자 궁극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어떤 민족이든 결혼은 대를 이어가는 방식이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결혼은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결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고려인의 결혼이 그들 사회가 유지되는데 어떤 인자로 기능하고, 민족혼 또는 민족 외혼(外婚)과 같은 고려인 사회가 선택하는 결혼 방식은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가늠하는 방법적 틀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고려인의 이주 역사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 시각으로 고려인의 삶과 정체성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요컨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 시기별로 차별되는 변화양상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는 고려인의 정체성 변이 양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강제이주를 경험한 고려인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소련 시기에는 고려인 사회가 민족 내혼을 고수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데 반해, 고려인 3,4세대와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 시기에는 이민족과 결혼하는 민족 외혼의 경향이 나타나는 결혼 인식의 변화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인 1,2세대 대부분이 민족 정체성을 완강하게 담보해온 데 반해, 고려인 3,4세대 일부는 민족 정체성의 혼란 또는 상실의 기미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변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려인 사회의 결혼 인식은 고려인의 정체성 변이에 중요한 인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 주제어: 고려인, 디아스포라, 결혼문화, 정체성, 민족, 콜호스, 오리엔탈리즘

참고문헌

-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세계한민족총서5, 통일원, 1996.
-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4.
- _____,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 김문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63-191면.
- _____, 『중앙아시아의 한국문화』, 좋은 땅, 2014.
- 김외근,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에 대한 탐구」,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 김 피오트르·박상현, 『在蘇韓人移民史-스탈린의 강제이주』, 탐구당, 1993.
- 김현주, 「CIS지역 고려인 문학을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 『한어문교육』 제31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4, 46-71면.
-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2013.
- 김홍명, 「소련 집단농장의 조직과 성격」, 『현대 소련의 해부』, 한길사, 1981.
- 문중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박명규,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1996.
-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일우문고, 1973.
- 방일권,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와 교육」, 『역사문화연구』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83-112면.
- 백태현·이애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 『비교문화연구』 제6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63-131면.
- 설동훈,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정체성」, 『경제와 사회』 103권, 비판사회학회, 2014, 278-312면.
- 윤인진, 「중앙아시아 韓人의 言語와 民族正體性」, 『재외한인연구』 7집, 在外韓人學會, 1997, 63-120면.
- _____,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고려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3.
- 윤형숙 외, 「소련 사회주의체제 해체 후 카자흐스탄 종족민족주의의 부활과 고려인의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6-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3-62면.
- 이광규,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토착문화의 융합문제」, 『민족발전연구』 2,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1998, 157-168면.
- 이광수,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 『민족개조론』, 우신사, 1981.
- 이은정,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 이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1호, 역사문화학회, 219-249면.
- 이재영 외,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19, 2003.
- 이정옥,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 구조의 변화-해체-재결합: 분절의 역동성」, 『사회와 역사』 48, 한국사회사학회, 1996, 133-164면.
- 이진형, 「대안적 디아스포라 이해와 그 이론적 난국」, 『집으로 가는 길: 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상상력』, 앨피, 2018.
-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2, 105-133면.
- 정동주,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1995.
- 정용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10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33-54면.
- 정진아, 「국내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인문학』, 5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35-65면.
- 최한우,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1997.
- 한국사회사학회 편,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1997.
- 홍용호, 「『레닌기치』에 나타난 1938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아시아문화연구』 제32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47-378면.
- 에드워드 사이드, 박흥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Warner, Warner Lloyd, and Srole, 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1991.

【Abstract】

Ethnic identity of Koreans in the CIS region through marriage culture

Kim, Hyun-ju·Chung, Duk-joon·Kim, Young-m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iaspora life of Koreans who have maintained their national identity for 150 years in the CIS region. Marriage is an encounter between individuals, but it is also a system of family and family meetings, and ultimately a system of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In other words, any nation continues its generation through marriage, and on the one hand, it functions as a means of inheriting the individual's biological genes,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unique function of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he nation. Therefore, marriage can be a very useful measure in not only grasping a person's free will but also in identifying a nation's identity.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such changes by track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marriage among Koreans based on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Key words】 : CIS-Korean, Diaspora, Marriage Culture, Identity, Ethnicity, Kolkhoz, Orientalism

김현주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교수

(030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전자우편: mook413@hanmail.net

정덕준

카자흐스탄국립대학 한국학과 초빙교수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arasay batyr 95, Almaty Kazakhstan

전자우편: djc21@naver.com

김영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kimym@kongju.ac.kr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